B. B. 워필드 『성경론: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이경직·김상엽 역)

워필드 · 부록 4 성경의 인간적 요소와 신적 요소

B. B. 워필드 『성경론: 성경의 영감과 권위』(이경직·김상엽 역, CLC), 부록 4, 텍스트판 303-308쪽. 처음 실린 곳은 "The Divine and Human in the Bible", The Presbyterian Journal, 1894년 5월.

🧭 흐름 한눈에

19세기 말 성경 비평이 활발해지면서 성경 곳곳에 남은 '사람의 흔적'이 크게 드러났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몫과 사람의 몫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라는 질문이 절박해졌다. 워필드는 먼저 이 질문이 실제 신앙에 중요하다는 점을 보인다. 영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결국 성경을 얼마나 믿느냐를 바꾸기 때문이다. 이어서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한다. 첫째, 한쪽 요소만 남기고 다른 쪽을 지우면 안 된다. 둘째, 두 요소를 성경을 나눠 갖는 경쟁자로 보아서도 안 된다. 셋째,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했다는 '협력'으로만 둘을 다 살릴 수 있다. 결론은 성경의 모든 단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이면서 온전히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권위가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와닿는 책이 된다.

📜 절별 정리

📜 1. 문제 제기: 왜 '어떻게 영감되었나'가 중요한가

최근 성경의 진정성(정말 그 시대·그 사람의 글인가), 저자성(누가 썼나), 온전성(본문이 원래 모습 그대로인가), 구성(어떻게 엮였나)을 따지는 논의가 많아졌다. 그 결과 성경을 하나님의 책으로만 생각하던 사람들도 성경에 인간 저자의 흔적이 뚜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두 질문이 생긴다. 영감하는 행위 안에서 두 요소는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그렇게 생긴 성경 안에서 두 요소는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어떤 이는 영감의 '방식'보다 '결과'만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워필드는

전적인 신뢰성도 함께 깎인다. “영감을 그렇게 강하게 볼 필요는 없다”는 말이 그 결과를 줄이는 근거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성경이 말하는 영감의 결과를 무너뜨리는 이론들이 버틸 수 없음을 보이겠다고 한다.

1. 비평 연구가 성경의 '사람 흔적'을 부각시켰다
2. 질문은 둘: 영감 행위 속 관계, 성경 속 결합
3. 방식에 대한 생각이 결과에 대한 믿음을 바꾼다
4. 영감을 약화하면 성경의 신뢰성도 약화된다
5. 그래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닌 신학적 문제다

> —
> 저자가 이 절에서 직접 인용한 구절은 없음

📜 2. 첫째 원리 ①: 하나님만 남기고 사람을 지우는 길 — 기계적 영감론

첫째 원리는 두 요소 가운데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해 다른 하나를 아예 빼 버리면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때 교회 안에는 성경의 신적 기원을 지키려는 열심 때문에 인간적 요소를 지우는 경향이 있었다. 이 견해에서 인간 저자는 성령의 대필자, 서기, 심지어 '펜'에 불과하다. 영감은 받아쓰기(dictation)가 되고, 사람이 보탠 것은 기껏해야 글씨체뿐이라고 본다. 워필드는 17세기의 여러 개신교 신학자를 이 '기계적 영감론'의 예로 든다. 루터파에서는 퀜슈테드·칼로브·홀라츠, 개혁파에서는 하이데거·벅스토프, 성공회에서는 리처드 후커, 청교도 가운데서는 존 화이트를 꼽는다. 그러나 성경 각 권의 어휘와 문체가 서로 다르다는 분명한 흔적 때문에, 이 극단적 견해는 교회를 지배하지 못했다. 그 흔적을 인정하면 결국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썼다는 '공저'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워필드는 오늘날 사람의 요소를 완전히 지우는 사람은 없다고 진단한다.

1. 사람을 '성령의 펜'으로만 보는 받아쓰기설
2. 17세기 일부 신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쳤다
3. 문체·어휘 차이가 이 견해의 극단화를 막았다

5. 오늘날 사람의 요소를 다 지우는 이는 없다

> —
>
> 저자가 이 절에서 직접 인용한 구절은 없음. 근거는 성경 각 권의 문체·어휘 차이라는 관찰

📜 3. 첫째 원리 ②: 사람만 남기고 하나님을 지우는 길 — 전적 인간설

오늘날 널리 퍼진 것은 정반대의 오류다. 성경을 기원과 성격 모두에서 오직 사람의 책으로 보는 견해다. 역사적으로는 합리주의(이성으로 증명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나왔지만, 철학적 바탕에 따라 모양이 다양하다. 이신론자, 헤겔주의자 휘튼, 신비주의자 호튼이 모두 같은 결론에 쉽게 동조한다. 이들 사이의 차이는 하나님이 이 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다고 인정하느냐, 인정한다면 그것이 계시였느냐 단지 섭리나 은혜의 준비였느냐 정도에 그친다. 워싱턴 글래든(1891)은 하나님이 성경 형성에 오래된 사과나무를 돌보듯 일반적인 섭리의 관심만 두셨다고 본다. 존 드윗(1893)은 예언자가 인간의 말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표현하도록 내버려졌다고 말한다. 조지 루크(1893)는 조금 더 높은 견해를 보이고, 독일의 스탈린(Stählin)은 그보다 더 높다. 스탈린은 하나님이 저자들을 미리 특별히 준비시키셨지만, 준비가 끝난 뒤에는 계속 인도하지 않고 '자유롭게' 쓰게 두셨다고 본다. 워필드는 이 변형들 모두가 결국 “성경을 만든 이는 사람, 오직 사람”이라는 생각을 공유한다고 정리한다.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을 보도한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기록이라는 것이다.

1. 지금 흔한 오류는 '성경은 오직 사람의 책'
2. 뿌리는 합리주의, 모양은 이신론·헤겔주의·신비주의
3. 글래든: 사과나무 돌보듯 일반 섭리만
4. 드윗: 예언자가 '알아서 최선을' 다했을 뿐
5. 스탈린: 미리 준비시켰지만 쓸 때는 인도 없음

> —
>
> 저자가 이 절에서 직접 인용한 구절은 없음

📜 4. 둘째 원리: 두 요소는 땅따먹기를 하지 않는다

둘째 원리는 두 요소를 성경 안에 나란히 놓인 채 성경을 나눠 갖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쪽이 들어오면 다른 쪽이 밀려나는 대립 관계로 보아서도 안 된다. 그런데 최근 “성경의 인간적 요소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말이 유행한다. 그 말에는 그만큼 신적 요소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함의가 숨어 있다. 워필드는 사려 깊은 학자 샌데이, 그리고 커크패트릭조차 이런 표현을 쓴다고 지적한다. 래드는 아예 신적 요소가 인간과 만나 '제한되는' 지점을 정하는 것이 핵심 난제라고 말한다. 그 밑바닥에는 “인간적인 것은 신적일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 전제를 받아들이면 사람의 흔적 하나하나가 성경의 신성을 반박하는 증거가 된다. 성경 전체에 사람의 흔적이 있으니, 결국 성경 전체가 신적이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 중간 단계로 성경을 뒤지며 “여기는 하나님, 여기는 사람” 하고 가르는 작업이 나온다. 샌데이는 엄격한 경계 긋기를 말렸지만, 그 전제를 품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가르지 않는 것이 실수로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호튼과 게스가 실제로 그 작업을 했고, 그 결론이 파괴적인 것도 놀랍지 않다. 사람의 손이 거의 모든 곳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은 거의 어디에도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1. “인간적 요소가 더 크다”는 말엔 함정이 있다
2. 숨은 전제: 인간적인 것은 신적일 수 없다
3. 그 전제라면 사람 흔적마다 신성의 반증이 된다
4. 결국 '여기는 신, 여기는 인간' 구획 작업으로 감
5. 끝은 “신적인 것은 거의 없다”는 파괴적 결론

> —
>
> 저자가 이 절에서 직접 인용한 구절은 없음. 논증은 상대 전제의 귀결을 따라가 보이는 방식

📜 5. 셋째 원리: 협력(concursus) —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셋째 원리는 '협력'이라는 개념만이 두 요소 모두를 정당하게 대우한다는 것이다.

(초월) 세상 안에서도 일하신다(내재)는 기독교의 하나님 이해다. 그래서 영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섭리와 은혜에서 일하시는 방식과 닮았다. 바울이 말하듯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지만,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성경적 기초도 세 가지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 선포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낸 것으로 일관되게 제시한다. 같은 본문을 하나님에게도, 인간 저자에게도 거듭 돌린다. 그리고 성경 자체를 신적이면서 인간적인 것으로 계속 인식한다. 근본 원리는 하나님의 활동이 인간 저자의 활동을 밀어내거나 무력하게 만들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작용해 성경을 낳았다는 것이다.

1. 오직 '협력'만이 두 요소를 다 살린다
2. 철학적 기초: 하나님은 초월하시며 내재하신다
3. 섭리·은혜에서 일하시는 방식과 같은 원리
4. 성경도 같은 본문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돌린다
5.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을 대체하지 않는다

> **빌립보서 2:12-13**
> 저자가 직접 든 유일한 구절. 사람의 수고와 하나님의 역사가 경쟁하지 않고 함께 간다는 '협력'의 유비
>
>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 **(참고, 저자 미인용) 마가복음 12:36**
>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 한 말씀을 다윗과 성령 모두에게 돌리는 예
>
> 마가복음 12:36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 **(참고, 저자 미인용) 사도행전 4:25**

> **사도행전 4:25**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 **(참고, 저자 미인용) 마태복음 1:22**
>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 말씀하신 분은 주, 통로는 선지자
>
> **마태복음 1: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모든 부분, 모든 단어, 모든 세부에 이르기까지 동시에 신적이며 인간적인 책" (문장 일부)

📜 6. 결과: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말이자 사람의 말

협력의 결과, 두 요소는 따로 놀지 않고 서로를 완전히 관통하며 하나의 저작을 이룬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부분은 하나님 것, 어느 부분은 사람 것이 아니다. 모든 단어가 동시에 둘 다다. 성경은 온전히 인간의 책이다. 각 단어에 저자의 인격, 의도, 문체, 논리, 역사적 상황이 실제로 담겨 있다. 동시에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가장 참된 의미에서 저자이시다. 두 요소는 섞여서 제3의 무엇이 되지 않으며 서로 떼어 낼 수도 없다. 성경 어디에도 신적 성격이나 인간적 성격과 모순되는 것이 없다. 이 관점에서는 하나를 인정한다고 다른 하나가 부정되지 않는다. 사람의 요소는 '성경은 순전히 사람의 책'이라는 이들만큼 철저히 인정된다. 하나님의 요소는 '사람의 요소는 없다'는 이들만큼 온전히 인정된다. 모든 단어가 성령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인도 아래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깊은 필요에 응답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변함없는 규범이 되고, 사람의 말이라서 우리 마음에 와닿는다.

1. 부분 분담이 아니라 단어마다 둘 다
2. 인격·문체·역사가 실제로 단어에 담겨 있다

4. 어디에도 신적 성격과 모순되는 것이 없다
5. 신적이라 권위 있고, 인간적이라 이해된다

> —
> 저자가 이 절에서 직접 인용한 구절은 없음

> **(참고, 저자 미인용) 베드로후서 1:21**
> 사람이 말했으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함 — '모든 단어가 성령의 인도 아래'라는 결론과 맞닿는 구절
>
> **베드로후서 1: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인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워필드가 인용한 웨스트코트의 말)

⚖️ 오해와 반론

📖 용어

영감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에게 일하셔서 그들이 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기계적 영감론(받아쓰기설)
저자를 생각 없는 필기도구로 보고, 하나님이 불러 주신 것을 받아 적기만 했다고 보는 견해. 워필드는 이를 거부한다.

협력(concursus, 콘쿠르수스)
하나님과 사람이 한 일을 함께 하되,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을 밀어내지 않고 그 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개념.

하나님이 세상보다 높이 계시며(초월) 동시에 세상 안에서 일하신다(내재)는 뜻.

섭리
하나님이 세상과 모든 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일.

합리주의
사람의 이성으로 확인되는 것만 참으로 받아들이고, 초자연적 계시는 의심하는 사고방식.

이신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뒤에는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보는 견해.

진정성·저자성·온전성
성경 비평이 묻는 질문들. 각각 '정말 그 시대의 글인가', '누가 썼나', '원래 본문 그대로인가'를 뜻한다.

축자 영감
성경의 생각뿐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까지 영감되었다는 견해. 이 장의 “모든 단어가 신적이며 인간적”이라는 주장과 이어진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영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성경을 얼마나 믿느냐로 이어지는 실제 문제다.
- 하나님만 남기는 받아쓰기설도, 사람만 남기는 전적 인간설도 반쪽짜리다.
- 두 요소를 땅따먹기하는 경쟁자로 보는 전제가 오늘날 성경 신뢰를 무너뜨리는 뿌리다.
-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하신 '협력' 덕분에 성경의 모든 단어는 온전히

- 그래서 성경은 권위 있는 규범이면서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19편 · 원본은 없는데 무엇을 믿나 · 보존, 사본, 번역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